

중국의 삼조문화론(三祖文化論) 제창과 중화삼조당(中華三祖堂) 건립 목적

金仁喜*

< 목 차 >

1. 서론
2. 삼조문화론의 등장과 이론화 과정
 - 1) 삼조문화론의 등장 과정
 - 2) 중국학자들에 의한 삼조문화론 이론화 과정
3. 삼조문화론의 개념과 문제점
 - 1) 삼조문화론의 개념
 - 2) 삼조문화론의 문제점
 - (1) 《사기·오제본기》 내용에 대한 지나친 맹신
 - (2) 화이변경(華夷邊境)의 확대와 탁록의 위치 변경
 - (3) 아전인수격의 고고문화 해석
 - (4) 후대에 발생한 일을 소급 적용
4. 삼조문화론 제창의 목적
 - 1) 삼조문화론이 등장한 정치적 배경
 - 2) 삼조문화론 제창의 목적
5. 결론

1. 서론

궈루현(涿鹿縣)은 허베이성(河北省)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장자커우시(張家口市)에 속해 있다. 장자커우시는 북으로는 내몽골, 서로는 산시성(山西省),

* 建國大學校 史學科 時間講師

동으로는 청더(承德)·베이징과 접하고, 남으로는 바오딩(保定)과 연결되어 있으며 명나라시기 외장성(外長城)의 경계이기도 하다. 장자커우는 몽골고원과 화북평원이 만나는 지점으로 역사상 초원유목민과 평원농경민이 교류하는 창구로 농목혼합지역에 속한다. 2001년 9월 니허만(泥河灣) 마취안거우(馬圈溝)유적에서 200만 년 전 구석기유적이 발견되었으며 신석기시기에는 북방의 허우홍산(後紅山)문화, 허난성(河南省) 일대의 양사오(仰韶)문화가 발견되어 남북의 문화가 교차하는 창구였음을 알 수 있다. 서주에서 춘추에 이르는 시기 용적(戎狄) 등의 유목민족이 활동하였으며 전국시기에 이르러 연나라와 조나라가 거주하게 되면서 역사문헌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진한 이후에도 여전히 서로 다른 민족이 접촉하고 잡거하는 지역으로 전쟁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전국시기부터 양한(兩漢), 요, 금, 원, 명, 청에서 근대에 이르는 수 천 년간 이곳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취루현은 황제와 치우가 탁록¹⁾대전을 벌인 곳으로 유명하다. 필자는 2013년 11월 1일에서 11월 4일까지 인하대학교 ‘상고사연구사업단’과 취루현의 삼조문화와 관련된 유적을 답사하였다. 취루현은 베이징에서 120km 떨어져 있어 2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취루현의 인구는 34.5만 명이고 면적은 2,802km이며 화북평원의 최대 포도생산지로 와인산업이 발달하였다. 취루현은 베이징에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북방의 농촌 모습을 하고 있었다. 대지는 푸석푸석하게 메말라 있었으며 백양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내밀고 있는 도로 사이를 옥수숫대를 가득 실은 농부의 마차가 지나고 있었다. 대지 위에 갑자기 우뚝 솟은 산봉우리는 황토로 뒤덮여 있어 북방의 삭막함과 호방함을 함께 맛볼 수 있었다.

답사 중 현지안내를 담당해 준 분은 취루중화염황치삼조문화연구회(涿鹿中

1) 중국어 표기규정에 의하면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 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는 탁록이라는 지명이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문헌상에 등장하는 탁록(涿鹿)은 우리 말 한자음을 따라 ‘탁록’이라 표기하고 현대 지명은 ‘취루현(涿鹿縣)’이라 표기한다.

華炎黃蚩三祖文化研究會) 회장인 런창화(任昌華) 선생이었다. 런 회장은 퇴임 이전에는 현위(縣委)²⁾에서 부서기를 역임하였으며 자신이 최초로 삼조문화(三祖文化)를 제안하였고 중화삼조당(中華三祖堂)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런 회장의 안내에 따라 드라마 〈영웅시대(英雄時代)〉 세트장³⁾, 중화삼조당, 황제성(黃帝城), 황제천(黃帝泉), 합부단(合符壇), 동쪽 치우무덤, 남쪽 치우무덤, 치우사(蚩尤祠), 치우천(蚩尤泉), 치우삼채(蚩尤三寨)를 답사하였으며 답사 기간 중 삼조문화와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런 회장은 삼조문화론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고 런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삼조문화론이 제기된 배경, 이론화 과정, 목적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삼조문화론이 등장하게 된 과정, 삼조문화론의 개념과 문제점, 삼조문화론을 제창하게 된 정치적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현지답사 자료와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새로운 ‘중화민족만들기 프로젝트’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삼조문화론의 등장과 이론화 과정

1) 삼조문화론의 등장 과정

런창화 회장이 삼조문화론을 주장하게 된 과정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www.kci.go.kr

2) 中國共產黨縣一級委員會의 약칭.

3) 신화상의 탁록대전을 주제로 드라마 촬영을 한 곳.

런 회장은 1992년 쑤루현 현위(縣委) 부서기로 있을 때 여행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임무는 황제사(黃帝祠)를 이용하여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염제, 황제, 치우와 관련된 쑤루현 경내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993년, 1994년, 1995년 사이에 매년 200회 이상 조사를 하였으며 가장 많은 경우는 280회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조사를 통하여 염황치(炎黃蚩)와 관련된 유적이 23곳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치우 또한 중국인의 조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은 황제사가 아닌 염제, 황제, 치우를 함께 모시는 중화삼조당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1994년 4월 2일 쑤루현 현장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야기하였는데 현장은 화가 나서 이후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런 회장은 걱정이 되어 베이징으로 가서 왕다여우(王大有)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였다. 왕다여우에게 “학문적으로 권위가 있어 말을 하면 모두 받아들일 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물었는데 왕다여우는 베이징대학 교수, 사회과학원 교수 등 여러 명을 추천하였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회과학원 원장인 리쉐친(李學勤)이 가장 권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왕다여우의 도움으로 리쉐친을 만났다. 리쉐친에게 삼조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치우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해야 함을 10분간 보고하였다. 리쉐친은 런 회장에게 3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왜 3명의 조상을 함께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논문을 쓰고 둘째, 2달 후에 자신이 쑤루현으로 가서 황제성(黃帝城)을 현장조사 하겠다고 하였으며 셋째, 삼조문화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리쉐친은 멩스카이(孟世凱)와 함께 쑤루현에 와서 현장조사를 하였다.

리쉐친의 건의에 따라 런 회장은 “1994년 11월 <삼조문화시설(三祖文化始說)>을 《중국정세보(中國政協報)》, 《런민일보(人民日報)》, 《구이저우일보(貴州日報)》와 프랑스, 동남아 등의 매체에 발표하였다.”⁴⁾

런 회장에 의하면 치우를 중국의 3대 조상 중의 한 명으로 추대하게 된 것은 자신이 현지조사를 한 결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먀오족(苗族) 노장군 천징(陳靖)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www.kci.go.kr

4) 張家口 인터넷신문, www.zjknews.com, 2012년 10월 8일.

2) 중국학자들에 의한 삼조문화론 이론화 과정

런 회장은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이론적 토대가 약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였다.

1994년 삼조문화론이 제기된 이후 7차례 국가 또는 성급의 삼조문화토론회가 개최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1995년 9월 25일에서 28일까지 중국선진사학회(中國先秦史學會), 중화염황문화연구회(中華炎黃文化研究會), 허베이성사회과학원(河北省社會科學院學), 허베이성염황문화연구회(河北省炎黃文化研究會), 장자커우시와 쥬루현 정부가 공동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황·염·치삼조문화학술연구회(黃·炎·蚩三祖文化學術研討會)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런창화가 제의한 것으로 리쉐친의 도움을 받았다. 1994년 런회장의 방문을 받은 후 리쉐친은 멩스카이, 황쿤(黃昆), 리셴딩(李先登), 송진하오(宋鎮豪) 등과 토론한 후에 삼조문화론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여 중국선진사학회가 쥬루현을 도와 삼조문화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역사연구소 소장, 중국선진사학회 회장, 선진사(先秦史) 연구자인 리쉐친과 멩스카이, 왕위신(王宇信),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연구원 정광(鄭光), 중국선진사학회 부회장, 베이징대학 교수이며 역사지리학자인 왕베이천(王北辰), 대만 중화논리교육회(中華論理教育學會) 사무국장인 시위(席瑜) 등 56명의 학자가 참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이 학술대회에 먀오족, 이족(彝族), 좡족(壯族) 등의 소수민족 학자들도 참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들이 삼조문화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유는 삼조문화론이 제기된 정치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들은 학술회의를 마친 후에 염제, 황제, 치우 관련 유적을 답사하고 사마천의 《사기·오제본기》 중의 탁록이 쥬루현 일대임을 확인하였다. 학자들은 치우가 중화문명발전에 있어 공헌이 있었음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을 보였고 삼조문화론을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1995년 삼조문화론은 시골 현 부서기의 주장이 아닌

중국 내 저명한 학자들도 인정하는 학설로 등장하게 된다.

3. 삼조문화론의 개념과 문제점

1) 삼조문화론의 개념

런창화는 삼조문화론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⁵⁾

첫째, 중화민족의 시조는 3명이다. 즉, 염제, 황제, 치우이다. 염제, 황제, 치우는 중국사회가 야만에서 문명으로 향하고, 유목에서 농경으로 향하고, 모 권제에서 부권제로 변하는 시기의 걸출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들을 문명의 시조로 숭배해야 한다.

둘째, 중화민족의 초기 창조는 염제, 황제, 치우 내지 이들로 대표되는 부락 또는 부락 연맹이 함께 창조한 것이다.

셋째, 염제, 황제, 치우는 중화민족의 초기 문명과 제도를 개창하였고 축적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보이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작용을 한 사건은 쥬루현에서 발생하였다.

런 회장에 의하면 “당시에는 계급이 없었고 계급간의 투쟁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가도 없었다. 생존을 위하여 서로 다툼을 한 것이 탁록대전이다. 탁록대전 이후 치우는 패배하였고 황제와 염제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여 전쟁이 일어났는데 황제가 염제를 패배시켰다. 이후 탁록의 부산(釜山)에서 합부(合符)를 하고 국가가 성립되었으며 황제성이 건립되었다. 황제성은 중화민족의 첫 번째 도성이다. 치우는 제련기술을 발명하여 청동기의 아버지라고 불렸으며 그는 군사가로 진지전을 알았으며 종자를 확보하여 원시농업이 발달하게 하였

www.kci.go.kr

5) 任昌華, <三祖文化始說>, 《千古文明開涿鹿》(河北省涿鹿縣旅游局·涿鹿中華炎黃蚩三祖文化研究會, 2000), 20쪽.

다. 역사는 치우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치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치우 또한 중화문명에 공헌이 많음으로 당연히 황제, 염제와 마찬가지로 중화민족의 시조로 불러야 하는데 이들 3명의 조상을 삼조(三祖)라고 한다. 삼조문화는 대략 5,000년 전에 3명의 조상인 황제, 염제, 치우가 쥐루현 일대에서 공동으로 창조한 찬란한 문화를 말한다”고 한다.

내용을 정리하면 염제, 황제, 치우는 문명을 창조한 중화민족의 공동의 조상으로 이들을 세 명의 조상, 즉 삼조(三祖)라고 하며 이들이 창조한 문화를 삼조문화라 하며, 이들은 쥐루현에서 혈전을 벌였는데 최종적으로 황제가 승리하여 중국 최초의 국가를 성립하였다는 것이다.

2) 삼조문화론의 문제점

삼조문화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일단 신화적 인물을 실존의 역사인물로 인식하였다는 것 외에도 실제 중국학계의 연구성과와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허난성(河南省) 뤼양(洛陽) 부근의 얼리터우문화(二里頭文化)가 중국 최초의 국가인 하나라의 유적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초의 국가로 공인되는 상나라의 경우도 허난성의 안양(安陽)에 위치하여 쥐루현과는 차이가 난다. 본장에서는 중국학계의 학설과도 상반되는 삼조문화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기·오제본기》 내용에 대한 지나친 맹신

중국학자들은 《사기·오제본기》의 “치우가 난을 일으켜 황제의 명령을 듣지 않아 황제는 제후를 징발하여 탁록의 교외에서 치우와 싸워 죽였다”⁶⁾와 황

www.kci.go.kr

6) 《史記·五帝本紀紀》 “蚩尤作亂 不用帝命 於是黃帝乃徵師諸侯 與蚩尤戰于涿鹿之野 遂禽殺蚩尤.”

제는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고 환산과 대종에 올랐으며, 서쪽으로 공동에 이르고 계두산에 올랐으며, 남쪽으로 창강(長江)에 이르렀고 웅상산에 올랐으며, 북으로 훈육을 쫓아내고 부산에서 부절을 합치고 탁록에 도움을 하였다”⁷⁾는 기록에 대하여 사마천이 고문헌 속에서 본 것이거나 직접 현장답사를 하여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학자들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사마천 스스로 다음과 같이 《사기·오제본기》의 자료의 내원에 대해서 밝혀 놓았기 때문이다. 사마천은 “공자가 전하였다고 하는 <재여문어제덕(宰子問五帝德)>과 <제계성(帝繫姓)>을 어떤 유학자들은 읽지 않는다. 나는 일찍이 서쪽으로 공동에 이르고, 북쪽으로 탁록을 지나갔으며 동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창강과 회수를 지나보았다. 도착한 곳의 노인들은 자신들 지역에 전하는 황제, 요, 순의 사적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풍속과 가르침이 모두 달랐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옛날 문헌, 즉 《상서》에 위배되지 않고 사실과 가까웠다. 《춘추》와 《국어》를 읽어보았는데 이 책들은 <오제덕>과 <제계성>에 대하여 잘 밝혀 놓았다. 단지 사람들이 깊이 고찰하지 않을 뿐이지 여기에 기록된 것들이 모두 허황된 것을 아니다. 《상서》의 결함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사라진 기록은 종종 다른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자료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배열하여 믿을 만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여 기록하고 본기를 써서 전체의 시작으로 삼았다”⁸⁾라고 하였다.

사마천이 “서쪽의 공동, 북쪽의 탁록, 동쪽의 바다, 남쪽으로 창강을 건넌 것”은 “황제가 동서남북을 순례하고 마지막에 북쪽의 탁록에서 도움을 한 역사를”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스스로 황제의 사적이 있는 곳을 답사하여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였음을 말한다. 지금으로 하면 인류학적 현장답사

7) 《史記·五帝本紀紀》“東至于海 登丸山及岱宗。西至崆峒 登鷄頭。南至于江 登熊湘。北逐葷粥 合符釜山 邑于涿鹿阿。”

8) 《史記·五帝本紀紀》“孔子所傳宰子問五帝德及帝繫姓，儒者或不傳。余嘗西至空桐 北過涿鹿 東漸於海 南浮江淮矣。至長老皆各往往稱黃帝堯舜之處 風教固殊焉。總之不離古文者近是。子觀春秋國語 其發明五帝德 帝繫姓章 顧弟弗深考 其所表見皆不虛。書缺有間矣 其軼乃時時見於他說。……余并論次 擇其言尤雅者 故著爲本紀書首。”

를 실시한 셈이다. 그러나 “풍속과 가르침이 모두 달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현지의 제보자들이 제공한 자료는 각기 상이하여 매우 혼란스런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오제덕>과 <제계성>은 《대대예기(大戴禮記)》의 62편과 63편에 전하고 있는데 이 서적에서는 “황제는 염제와 전쟁을 할 뿐 치우와 탁록에서 전쟁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오제본기>에서는 황제가 염제와 전쟁을 한 후에 다시 치우와 전쟁을 하여 승리한 것으로 쓰여 있는데 황제와 염제의 전쟁은 <오제덕>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며, 황제와 치우의 전쟁은 다른 서적과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치우와 황제의 전쟁에 대해 처음으로 기록한 《서·여형(書·呂刑)》에는 이들이 전쟁을 한 구체적인 위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전국시기의 여러 문헌 중 《장자·도척(莊子·盜跖)》, 《일주서·상맥(逸周書·嘗麥)》⁹⁾에서는 탁록에서 전쟁을 하였다고 하고, 《열자·황제편(列子·黃帝篇)》에서는 판천(阪泉)에서 전쟁을 하였다고 하고, 《산해경·대황동경(山海經大荒東經)》에서는 기주(冀州)에서 전쟁을 하였다고 한다. 초기문헌의 기록으로 보아 치우는 탁록 뿐만 아니라 판천, 기주에서도 전쟁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전국시기 이미 치우가 전쟁을 한 지역이 한 곳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탁록의 위치에 대하여 쥐루현 이외에도 허베이성 바오딩시(保定市)설, 산시성 윈청시(運城市)설, 장쑤성(江蘇省) 쉬저우시(徐州市)설, 허난성(河南省) 슈우현(修武縣)설 등이 있다. 탁록설은 사마천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채택하였을 뿐으로 이러한 상황은 사마천 스스로가 <오제본기>의 말미에서 “재평가하고 재배열하고 취사선택하였다”고 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기·오제본기》가 황제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오제본기>의 황제 관련 내용은 사마천이 생존하던 한나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한나라 시기의 황제와 치우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을 뿐이다. 사료비판적 태도로 <오제본기>에 대한 독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9) 《逸周書·嘗麥》에서는 “涿鹿之河”라고 하여 “탁록이 강이름”이라고 하였다.

(2) 화이변경(華夷邊境)의 확대와 탁록의 위치 변경

《사기·오제본기》에 보이는 황제와 치우의 탁록전쟁은 내용이 매우 간략하며 탁록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다. <오제본기>에는 “황제가 치우와 탁록의 교외에서 싸워 치우를 죽였다”¹⁰⁾, “북으로 훈육을 쫓아내고 부산에서 부절을 함치고 탁록에 도읍하였다”¹¹⁾, 사마천이 “북쪽으로 탁록을 지났다”¹²⁾와 같은 문장에서 탁록이 3번 등장한다. 위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오직 하나, 탁록이 북쪽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후 학자들은 모두 탁록의 위치를 사마천의 간략한 기술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쥐루현 일대에 탁록이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연구자는 왕베이천(王北辰)이다. 그는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의 기록에 의하면 한나라 시기 전국에 오직 탁록현(涿鹿縣)은 하나뿐인데 상곡군(上谷郡) 내에 있다. …… 이 지명은 2,000여 년간 이어져 내려오며 변하지 않았다”¹³⁾라고 하였다. 왕베이천의 의미는 “황제와 치우가 전쟁을 한 탁록이 한나라 시기 상곡군의 탁록현이며, 한나라시기 탁록현은 황제시대부터 무려 5,000년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 이전에는 쥐루현에 탁록현이 보이지 않으며, 쥐루현은 한나라 이후 청나라 때까지 광녕현(廣寧縣), 회융현(懷戎縣), 반산현(礮山縣), 영흥현(永興縣), 보안주(保安州), 보안현(保安縣) 등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1914년 쥐루현(涿鹿縣)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황제에서 한나라에 이르는 3,000년, 그리고 한나라 이후 1914년 다시 쥐루현으로 불리기까지 근 2,000년의 공백이 있다. 실제로 쥐루현이 탁록현으로 불린 것은 한나라시기와 1914년 이후로 쥐루현이 계속적으로 탁록대전의 전장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10) 《史記·五帝本紀》 “蚩尤作亂 不用帝命 於是黃帝乃徵師諸侯 與蚩尤戰于涿鹿之野 遂禽殺蚩尤.”

11) 《史記·五帝本紀》 “北逐葷粥 合符釜山 邑于涿鹿阿.”

12) 《史記·五帝本紀》 “北過涿鹿.”

13) 王北辰, <黃帝史跡涿鹿, 阪泉, 釜山考>,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4年 第1期, 109쪽.

황제시기와 3,000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시기의 탁록이 황제시기의 탁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고문헌자료로 볼 때 한나라시기 탁록이 쥐루현 일대에 있었음은 사실이다. 동한 말년의 학자 문영(文穎)은 《한서·형법지》 탁록지야(涿鹿之野) 조에서 “탁록이 상곡군에 있다”¹⁴⁾라고 주를 달았다. 《한서·지리지》와 문영의 주를 볼 때 서한과 동한시기 실제로 상곡군에 탁록현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상곡군은 지금의 허베이성 쉬안화현(宣化縣)에 위치하여 현재의 쥐루현과는 40km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사마천을 비롯한 한나라 시기 사람들은 탁록이 왜 허베이성 서북지역에 있다고 생각하였을까? 그 이유는 진한시기 새로운 영토의 확장으로 인한 화이변경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전국시기 연나라 땅이었으며 진나라시기에는 흉노족이 침입하여 진시황이 몽념(蒙恬)을 시켜 북쪽으로 몰아냈다. “몽념이 북쪽으로 흉노를 추격한 전쟁은 기원전 215년에 시작되어 기원전 214년에 끝났다. 전쟁의 결과 몽념이 흉노를 북쪽으로 700리 몰아내고 흉노가 침범한 서북변경을 모두 수복하였다.”¹⁵⁾ “기원전 215년 진시황은 직접 동쪽의 갈석(碣石)에 이르렀으며, 북평군(北平郡), 어양군(漁陽郡), 상곡군(上谷郡), 대군(代郡), 안문군(雁門郡)을 돌아보고 상군(上郡)을 거쳐 함양으로 돌아왔다”¹⁶⁾고 하는데 이는 당시 수복한 지역을 순례한 것이다. 탁록현이 속한 상곡군도 역시 진나라의 판도에 포함되었고 진시황의 발자취가 머물렀다.

한 무제는 다시 침범을 한 흉노와 전쟁을 위해 40여 년간 15차례 원정을 하였다. 중요한 전쟁으로는 하남지전(河南之戰), 하서지전(河西之戰), 막북지전(漠北之戰)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전쟁은 기원전 119년의 막북지전이다. 한 무제는 위청(衛青)과 곽거병(霍去病)에게 10만 기병과 수십만 보병을 이끌고 각각 지금의 내몽골 후허하오터시(呼和浩特市) 동남에 위치한 정양군(定襄郡)과 지금의 허베이성 웨이현(蔚縣)에 위치한 대군(代郡)에서 출발하여

14) 《漢書·刑法志》 涿鹿之野 “在涿鹿在上谷.”

15) 臺灣三軍大學 편저, 《中國歷代戰爭史》 第2冊(中信出版社, 2012), 253쪽.

16) 臺灣三軍大學 편저, 위의 책, 255쪽.

공동으로 흉노를 공격하게 하였다. 막북전쟁은 흉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흉노는 사막 북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한 무제는 60만의 이졸(吏卒)에게 둔전(屯田)하며 방어를 하게 하였는데 이로써 쥐루현 일대는 완전히 중국의 판도에 들어오게 되었고 새로운 화이변경이 설정되게 되었다.

전쟁이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그곳은 황제의 고향이 되고 중화민족의 발상지가 되었다. 진한시기 상곡군 일대는 새롭게 화하의 강역에 편입된 지역으로 새롭게 화이변경이 설정된 곳이다. “춘추시기에 제후국들이 융적에 대하여 공동 방어하려고 화하라고 자칭했고 이때부터 화하정체성이 발생했다. 주나라를 비롯하여 추종하는 부족들은 농업과 정착생활을 내세워 은나라를 모방하려는 동방화를 추구했고 이와 달리 용이라는 부족들은 유목과 이동을 지속했다. 따라서 두 집단 사이에 변경과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한나라의 세력은 생태지리의 한계까지 확장되었으며 정치적 지리의 경계가 되었다.”¹⁷⁾ 상곡군의 탁록현 일대는 전쟁을 통하여 새롭게 수복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에 있어 농업과 유목의 경계지대로 이 지역이 새로운 화하변경이 되었다.

사마천은 이러한 정치적, 생태적 환경 속에서 이곳이 바로 황제가 치우로 대표되는 이족(夷族)을 물리친 탁록이라고 보았다. “황제가 북으로 훈육을 쫓아내고 탁록에 도움을 하였다”는 <오제본기>의 내용은 진시황과 한 무제가 흉노를 몰아낸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 지역은 새로운 탁록으로 손색이 없었다. 사마천뿐만 아니라 한나라 정부도 이를 인정하여 장자커우시 위안화현에 탁록현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진시황이 통일전쟁을 마친 후에 “동쪽의 갈석, 북평, 어양, 상곡, 대, 안문 각 군을 돌아보고 상군을 거쳐 함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치우와의 전쟁을 승리하여 세상을 평정한 후에 동서남북을 순례한 후에 탁록에 도읍하였다”는 황제의 고사를 재현한 것으로 이는 진시황이 곧 황제(黃帝)임을 천명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유

17) 王明珂 지음, 이경룡 옮김, 《중국 화하변경과 중화민족》(동북아역사재단, 2008), 33-35쪽.

방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권력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황제(黃帝)에 대한 제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한서·고조본기(漢書·高祖本紀)》에 의하면 기원전 206년 유방은 제위에 오른 후에 아버지의 유훈을 따라 궁전에서 황제상(黃帝像)에 절을 하였다”¹⁸⁾고 한다.

위의 논의를 통하여 한나라 시기의 허베이성 서북에 탁록현이 등장하게 된 것은 화이변경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고문헌상의 황제와 치우가 전쟁을 한 탁록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아전인수격의 고고문화 해석

취루현이 고대 탁록이라고 주장하는 고고학적 근거는 “장자커우시 일대에서 북방의 황제족 문화인 홍산(紅山)문화, 염제족의 문화인 양사오문화의 먀오디거우(廟底溝)유형, 치우족의 문화인 양사오문화의 허우강(后崗)문화유형이 발견된다”¹⁹⁾는 것이다. 장자커우시에서 세 지역의 문화가 발견되니 이는 황제, 염제, 치우가 전쟁을 하고 융합하였다는 문헌상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장자커우시 일대의 구체적인 유적을 황제, 염제, 치우와 연결시켜 설명한 예도 있다. “쓰스리포(四十里坡)유적은 허우강1기(后崗一期)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치우부락의 세력범위이다. 산관(三關)유적은 먀오디거우문화유형의 특징이 나타나며 염제부락의 세력범위이다. 둘은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북쪽으로 가면 후류하(壺流河)와 쌍간하(桑干河)가 만나는 지점으로 장자량(姜家梁)무덤과 유적이 있는데 허우홍산(後紅山)문화의 특징이 나타나며 황제부락의 본영이다. 3개의 신석기 문화가 25km 범위 내에 있어 황제, 염제, 치우가 전쟁을 한 곳임을 알 수 있다.”²⁰⁾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홍산문화의

18) 賀勇 등, <京西涿鹿炎黃文化的形成,鞏固和發展>,《張家口考古文集》(張家口文物考古研究所 編, 中州古籍出版社, 2009), 144쪽.

19) 韓建業은 <涿鹿之戰探索>(《中原文物》, 2002年 第4期)에서 염제족은 양사오문화 반포(半坡)유형으로 대표되며, 치우족은 허우강(后崗)유형으로 대표되고, 황제족은 먀오디거우(廟底溝)유형으로 대표된다고 하였다.

20) 常文鵬·王剛, <從考古學角度試論黃帝在涿鹿>,《文物春秋》2013年 第3期.

특징인 옥저룡(玉猪龍), 양사오문화의 마아디거우유형의 특징인 아가리와 바다
 닥이 뾰족한 호리병과 장미문양의 채도가 발견되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옥저룡은 황하하류의 다원커우(大汶口)문화, 창강중류의 스자허
 (石家河)문화, 창강하류의 량주(良渚)문화에서도 나타나며, 채도의 경우 양사
 오문화에서 변성하였으나 황하하류와 동북지역의 신석기문화에서도 등장한
 다. 문화의 확산에 따른 유물의 등장을 마치 당시 부족집단이 이동이 있었고
 이것이 고문헌상의 기록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재 중국
 고고학계의 커다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쑤빙치(蘇秉琦)이다. 그는 직접적으로
 현재의 쑤루현이 고문헌상의 탁록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홍산문화
 가 황제부락의 문화라는 설'과 '삼차구(三岔口)설'은 학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
 였다. 쑤빙치는 "장자커우는 중원과 북방문화계통이 접촉하는 세 갈래길(三岔
 口)이며 북방과 중원문화가 교류하는 양 방향의 통로"²¹⁾라고 하였다. 1984년
 쑤빙치는 삼차구(三岔口)에 대하여 진일보한 해석을 하였다. "옌산(燕山) 양측
 의 장자커우지역 웨이현(蔚縣) 옌융딩하(沿永定河) 상류 쌍간하(桑干河)의 지
 류인 후류하(壺流河) 유역에서 자신의 특징이 있는 신석기시대 유적을 발굴하
 였는데 대략 지금으로부터 6,000년-5,000년경으로 6,000년 전후 유적에서
 초보적인 판단에 의하면 홍산문화, 마오디거우유형 양사오문화, 안양(安陽)
 허우강하층(后岡下層)으로 대표되는 양사오 신문화(新文化) 등 여러 특징이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²²⁾고 하였다. 쑤빙치는 이외에도 "장자커우지역
 은 국가형성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진한 이전에도 그
 러할 뿐만 아니라 오호난화(五胡亂華)에서 요, 금, 명, 청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무대에서 연출되었다"²³⁾고 하여 고문헌상의 탁록이 쑤루현

21) 蘇秉琦, <蔚縣三關考古工地座談會講話要点>, 《華人·龍的傳人·中國人》(遼寧出版社, 1994).

22) 蘇秉琦, <燕山南北長城地帶考古工作的新進展>, 《華人·龍的傳人·中國人》(遼寧出版社, 1994).

23) 蘇秉琦, 《中國文明起源新探》(三聯書店, 1999), 50-51쪽.

임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화이라이현(懷來縣) 리관잉향(李官營鄉) 얼바오촌(二堡村)에는 치우무덤 앞에 화이라이현 교통국에서 2007년 10월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치우와 염제, 황제가 전쟁을 한 장면을 그려 놓은 벽화가 있다. 치우부족은 허난성 북쪽의 허우강문화인으로 북쪽으로 진격하였으며, 염제부족은 허난성 서쪽의 마오디 거우문화인으로 북쪽으로 침략하여 쥐루현에서 황제와 전쟁을 한 것으로 묘사 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쑤빙치의 학설과 일치한다.

(4) 후대에 발생한 일을 소급 적용

현재 쥐루현에 “황제성(黃帝城), 황제천(黃帝泉), 황제전(黃帝殿), 교산(橋山), 치우성(蚩尤城), 치우채(蚩尤寨), 치우천(蚩尤泉), 치우분(蚩尤墳), 치우사(蚩尤祠), 염제묘(炎帝廟), 판천(阪泉), 탁수(涿水), 부산(釜山), 정차대(定車臺), 반천(潘泉), 온천행궁(溫泉行宮), 탁록산(涿鹿山), 탁록지야(涿鹿之野), 팔괘촌(八卦村) 등 삼조문화와 관련된 풍부한 유적이 있다”²⁴⁾는 것도 삼조문화론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위의 예 중에서 황제전, 치우사, 염제묘는 최근에 지은 것으로 2003년에서 2011년에 이르는 동안 대만의 유심성교(唯心聖教)의 훈위안(混元)선사가 쥐루현에 와서 중국돈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은 것이다. 훈위안선사는 런 회장을 찾아와 “자신이 3명의 조상에게 각각 사당을 지어주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런 회장이 쥐루현과 상의하여 짓게 되었다고 한다. 치우사에는 단군을 시작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패도 모셔져 있다. 필자는 2013년 1월 초 대만의 유심성교에서 거행한 <중화민족연합제조대전(中華民族聯合祭祖大典)>에 참가하였는데 이곳에서도 단군을 비롯한 한국의 역대 왕들을 제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한민족을 중화민족의 일부로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본고에서는 쥐루현이 고문헌상의 탁

24) 任昌華, <三祖文化 中華之光>, 《民主》(2012年 7月), 31쪽.

록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유적인 황제성, 황제사, 치우성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다.

현재 황제성이라 부르는 것은 고문헌에서는 탁록성(涿鹿城),²⁵⁾ 탁록고성(涿鹿故城)²⁶⁾이라 불렀다. 《명일통지》에서는 현원성(軒轅城)²⁷⁾이라 불렀는데 청나라시기 문헌인 《가경중수일통지》에서는 “《명일통지》에서 현원성이라 한 것은 탁록성이다”²⁸⁾라고 수정하여 현원성이란 용어가 적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명나라시기 잠시 현원성이라 불렀으나 이 성의 본래 이름은 탁록성임을 알 수 있다.

황제성에 대한 고고발굴성과도 탁록성이 황제가 도읍한 곳이 아님을 보여준다. “1997년 3월과 4월 황제성 성벽의 동북부 모퉁이 부분에서 룡산(龍山)문화시기의 지층을 발견하였고 룡산문화시기 도기편이 약간 발견되었으나 아직 정식 발굴은 하지 않았다”²⁹⁾고 하는데 또 다른 연구자에 의하면 “황제성에서 발견된 유물은 모두 전국시기와 한나라 시기의 것으로 이 성 유적에서 황제시기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보다 늦은 시기의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성은 전국시기와 한나라 시기의 고성으로 동한 이후에는 폐기되었다”³⁰⁾고 한다.

따라서 황제성의 본래 이름은 탁록성이며, 주로 전국시기와 한나라시기에 사용된 성으로 황제가 쥐루현 일대에 도읍을 한 증거라는 견해는 성립될 수 없다.

원래 황제사(黃帝祠)는 현재 중화삼조당 앞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옥

25) 《晋太康地理記》“涿鹿城東一里有阪泉 上有黃帝祠.”; 《魏土地記》“不洛城東南六十里涿鹿城.”; 《太平寰宇記》卷71 媯州 懷戎縣“本漢潘縣也 屬上谷郡 涿鹿山 山下有涿鹿城 亦涿水出焉.”

26) 《水經·課水注》“琢水出琢鹿山 世謂之張公泉 東北流經琢鹿縣故城南.”; 《括地志》媯州“涿鹿故城在媯州東南五十里 本黃帝所都也.”

27) 《明一統志》卷五 保安州 古跡門“軒轅城在州城東南四十里 今名古城, 其中舊有軒轅廟基.”

28) 《嘉慶重修一統志》卷四十 宣化府 古跡門 涿鹿故城“今保安州東南四十里有土城遺址 制甚宏闊 中有黃帝廟 明志謂之軒轅城 卽涿鹿城也.”

29) 賀勇 등, 앞의 논문, 147쪽.

30) 劉建華, <張家口地區戰國時期古城址調查發現與研究>, 《張家口考古文集》(張家口文物考古研究所 編, 中州古籍出版社, 2009), 244쪽.

수수받으로 변하여 흔적을 찾기 힘들었다. 가장 최초의 문헌기록은 동한 말년의 학자 문영(文穎)이 《한서·형법지》 탁록지전(琢鹿之戰)에 대한 주에서 “탁록은 상곡군에 있으며 현재 판천과 황제사가 있다”³¹⁾라고 한 것이다. 이후에도 《후한서·군국지》³²⁾, 《진태강지리지》³³⁾, 《위토지기》³⁴⁾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한나라시기 쥐루현 일대에 황제사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시기 황제사는 황제가 존재하였다고 하는 시기와 3,000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한나라의 황제사가 황제시기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이 지역의 “황제에 대한 제사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북위 시기로 북위왕조를 건립한 척발선비는 민족자신감과 몰락한 서진 왕조 내지 흉노, 게(揭) 등 소수민족세력과 경쟁 과정에서 척발선비가 황제의 후예라고 선언하였고 황제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였다.”³⁵⁾ 《명일통지》에서 “헌원성 안에 예전에 헌원묘가 있었다”³⁶⁾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명나라 때 황제사가 허물어지고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여행상품으로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이미 사라진 황제사를 복원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후에 삼조문화의 대두로 중화삼조당을 짓게 되었다.

황제사는 황제로부터 3,000년 후 한나라시기 등장하며 가장 번성한 시기도 북방민족인 척발선비에 의한 것으로 황제사를 근거로 황제가 이곳에 도읍하였다는 설은 성립할 수 없다.

치우성도 쥐루현이 고대 탁록임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진태강지리지》에서는 “탁록성 동쪽 1리에 판천이 있으며 그 위에 황제사가 있으며 판천은 지명이다. 판천의 샘물은 동북으로 흘러 치우천과 만나며 물이 치우성으로 나오는데 치우성은 동남쪽이 없다”³⁷⁾고 하였다. 《위토지기》에서는 “탁록성

31) 《漢書·刑法志》 涿鹿之野 “在涿鹿在上谷 今見(現)有阪泉地黃帝祠.”
 32) 《後漢書·郡國志》 上谷郡 涿鹿縣 “《帝王世紀》曰黃帝所都 有蚩尤城阪泉地黃帝祠.”
 33) 《晉太康地理記》 “涿鹿城東一里有阪泉 上有黃帝祠.”
 34) 《魏土地記》 “不洛城東南六十里涿鹿 城東一里有阪泉 泉上有黃帝祠.”
 35) 楊倩描, <北魏王朝與涿鹿黃帝廟祭>, 《張家口職業技術學院學報》 第13卷 第1期, 2000.
 36) 《明一統志》 卷五 保安州 古跡門 “軒轅城在州城東南四十里 今名古城, 其中舊有軒轅廟基.”
 37) 《晉太康地理記》 “涿鹿城東一里有阪泉 上有黃帝祠 阪泉亦地名也. 泉水東北流 與蚩尤泉會 水出蚩尤城 城無東面.”

동남 6리에 치우성이 있다”³⁸⁾고 하였다. 《위토지기》는 북위왕조가 업(鄴)지역에 천도한 초기에 제작한 지리서로 서진의 《진태강지리기》보다 조금 늦다. 취천(曲辰)의 연구에 의하면 “치우성유적은 지금의 판산진(攀山鎮) 룡왕탕촌(龍王塘村) 남쪽 계곡에 있었다고 하며 예전에는 치우묘(蚩尤廟)와 치우상(蚩尤像)이 있었다고 한다. 청나라 말년에 잔존 성벽을 받두령으로 만들었으며 근대에 농지가 되어 이미 흔적이 없다”³⁹⁾고 한다. 서진시기의 문헌에 ‘치우성이 존재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서진시기 치우성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고고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치우성이 어느 시기의 성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치우채는 현재도 남아 있어 직접 답사할 수 있었다. 판산촌 룡왕탕촌(龍王塘村) 서쪽 언덕에 있는데 독립된 3개의 황토 둔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치우삼채(蚩尤三寨)라고 한다. 북쪽과 서쪽은 100미터 이상의 깊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쪽과 동쪽은 인공적으로 토성을 쌓아올려 자연적이 요새를 갖춰 난공불락지역으로 최고의 방어요새임을 알 수 있다. 2013년 11월 2일 치우채를 방문할 때 런 회장의 운전기사였다고 하는 리기린(李紀林, 65세) 노인이 함께 참가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주었다. 리기린 노인은 어려서 이 마을에서 자랐으며 70년대 이후 도시에 나가 생활을 하었다고 한다. 리기린 노인은 “당시 어른들은 이곳을 치우채라고 불렀으며 우리가 치우의 후대인지는 모르겠으나 베이징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치우와 닮았다고 하며 치우의 후예라고 하였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

취루현에는 보(堡)자로 끝나는 지명이 많은데 중국어 지명에서 ‘보(堡)’자는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붙인 지명이다. 치우는 전쟁 영웅인 진시황이나 유방에게도 숭배를 받은 전쟁신으로 이 지역에 주둔한 군인들은 자신들의 주둔지를 치우채라 불러 용기를 북돋았을 가능성이 있다. 《태평환우기》 권46에서 “치

38) 《魏土地記》“涿鹿城東南六里有蚩尤城。”

39) 曲辰, <古涿鹿黃帝遺跡述略>, 《炎黃文化研究》1995年 第2期.

우성은 산시성(山西省) 안읍현의 남쪽 18리에 있다”⁴⁰⁾하고, 《속이견지》 권 4에서 “산시성의 화주 경계에 치우성이 있다”⁴¹⁾고 하는 것으로 보아 치우성이 쥐루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군대가 주둔하고 전쟁이 빈발하는 곳이면 어디든 치우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체적으로 말해, 황제성의 본래 이름은 탁록성이며 건축년대는 전국시대를 넘어서지 않고, 황제사는 한나라시기 등장하며 북위시기 북방민족인 척발선비에 의해 가장 번성하였으며, 치우성은 서진시기 이전 문헌에 등장하지 않으며, 치우채는 전쟁이 일어난 다른 지역에서도 치우성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황제성, 황제사, 치우성, 치우채는 쥐루현이 고문헌상의 탁록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 삼조문화론 제창의 목적

1) 삼조문화론이 등장한 정치적 배경

삼조문화론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맹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쥐루현뿐만 아니라 중국학계, 중국정부가 삼조문화론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쥐루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관광산업과 관련이 있으며, 중국학계나 중국정부는 ‘중화민족 대통합’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

1949년부터 문화대혁명 기간인 1966년-1978년은 인문사회과학의 모든 학술연구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었으며 실제적인 연구가 없었다. 1978년 십일계삼중전회(十一屆三中全會) 이후 진정한 인문사회과학이 시작되었고 염황연구

40) 《太平寰宇記》 卷四十六 “蚩尤城在(安邑)縣南十八里 其城今摧毀.”

41) 《續夷堅志》 卷四 “華州界有蚩尤城.”

(炎黃研究)도 197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세기 90년대에는 염황열(炎黃熱)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1989년 천안문사태로 위기감을 느낀 중국 공산당이 흩어진 민심을 규합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2년부터 시행한 애국주의 교육의 일환이었다. 중국 애국주의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민족분열과 국가 분열을 반대하며 간 민족의 단결과 국가의 통일을 유지하고 보호한다”는 것으로 황제와 염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의 화인은 물론 중국 내 소수민족을 결집시켜 중화민족의 틀 속에서 포용하려 하였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상상과는 달리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4년 초 쑤루현 정부에서는 당시 한창 일어난 염황열을 이용하여 이 지역에 염황상(炎黃像)을 세우고 염황성(炎黃城)을 건설하여 여행상품으로 개발하려 하였다. 당시 중국인민해방군 난징군구(南京軍區)에 근무하였으며 홍군장정(紅軍長征) 출신의 마오족 노장군 천징(陳靖)은 평상시 염황에 관한 내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신문에서 이 소식을 보고 즉시 쑤루현 정부에 편지를 써서 반대를 표시하였다. “편지에서 천징은 근래 염황열을 정조준하여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소수민족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것으로 염황성 건설과 염황상 건립을 반대함을 명확히 표현하였고 쑤루현에 염제, 황제, 치우 3명의 조상을 기념하는 동상과 건축물을 지을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고 하였다.”⁴²⁾ 당시 황하변에도 염황의 상을 세우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천징은 이쪽에도 편지를 썼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염황상이 정저우(鄭州)에는 세워졌다.

“쑤루현 지도자에게 편지를 쓴 이후 천징은 1995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마오족 홍군노전사(紅軍老戰士)의 명의로 치우문제를 당시 중국사회과학원장, 저명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가인 후성(胡繩), 중공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위원, 정협(政協) 주석 리르환(李瑞環), 중국인민해방군 개국원훈(開國元勳), 중화염황연구회(中華炎黃研究會) 집행회장 샤오커(蕭克) 장군 등 관련

42) 楊志強, <蚩尤平反與炎黃子孫——兼論近代以來中國國民整合的兩條路線>, 《中國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卷27 第4期(中國農業大學, 2010), 105-106쪽.

기구에 편지를 썼다. 이 편지 중 그는 ‘치우, 구려(九黎), 삼묘(三苗), 마오족 사이의 연원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우는 마오족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한족의 시조임을 주장하고 왕조시대와 민국시기 한문화가 정통이라는 관념하에 치우를 부정적인 인물로 본 것을’ 비판하였다. 또한 치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염황과 함께 중화민족의 공동조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⁴³⁾

“그의 편지는 강렬한 영향을 발생시켰다. 먼저 노홍군(老紅軍), 노혁명(老革命)의 신분은 그의 편지가 일반적이지 않은 무게를 주었다. 그 다음 그가 편지에서 남방의 10여 개 민족 중 ‘마음이 떠나는(离心) 경향’이 생산된다는 경고는 중국 정치생활 중 가장 민감한 민족문제를 건드린 것으로 정부의 주의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천징의 편지를 받은 후 쑤루현 정부는 원래의 계획을 바로 취소하고 치우, 염제, 황제 삼조당(三祖堂)을 짓는 방안을 세웠다.”⁴⁴⁾

따라서 쑤루현에 중화삼조당이 건립된 것은 마오족의 건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런 회장은 자신이 1993년 처음으로 삼조문화론을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정황으로 보아 천징의 편지를 받은 이후에 삼조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초에 천징의 편지를 받은 이후 리췌첸 등과 상의를 하고 1994년 11월에 정식으로 삼조문화론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천징이 여러 차례 쑤루현을 방문하였으며, 런 회장도 구이저우에서 거행되는 마오족학회에 참여를 하였고, 1995년 학술대회 때도 마오족 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중화삼조당을 개관할 때는 마오족들이 자비를 들여 대규모의 공연단을 꾸려 참석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2) 삼조문화론 제창의 목적

삼조문화론을 제창하게 된 배경은 마오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강렬한 반대

43) 楊志强, 위의 논문, 106쪽.

44) 楊志强, 위의 논문, 106쪽.

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양즈창(楊志强)⁴⁵⁾은 “마오족사회의 치우열풍과 한족 사회의 염황열풍은 사실 전통의 화이지변(華夷之辨)의 연장이며 근대 이래 국가(中華民族)와 민족(炎黃子孫)이라는 두 가지 다른 길을 통합하는 과정에 드러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충돌”이라고 보았다. 중화민족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영토 안에 포함된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개념인데 반하여 염황자손은 국가를 넘어 문화적 공통성을 지닌 한족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1990년대 이후 염황열풍으로 등장한 쥐루현의 황제사 건립은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혔으며 결국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 삼조문화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삼조문화론의 등장 배경은 염황자손이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중국 내 반공산당 세력을 제어하고 세계 각지의 화인을 규합하는 과정에 등장한 한족 중심주의를 중국 내 소수민족들이 반기를 들면서 이를 정합하는 과정에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삼조문화론은 작은 시골의 부서기에서 시장되었으나 중국학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리췌진, 루오저원(羅哲文), 멩스카이, 송전하오(宋鎮豪) 등이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화삼조문화의 개발과 건설은 중앙 지도자들의 높은 중시를 받았다. 2012년 류윈산(劉云山), 자칭린(賈慶林), 리창춘(李長春)이 중화삼조당에 들러 시찰을 하였다. 류윈산은 ‘쥐루현은 중화문명의 중요한 발상지로 삼조문화는 5천 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중화민족의 유구한 역사문화의 뿌리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였다.”⁴⁶⁾

삼조문화론이 정치적으로 왜 중요한지는 런창화의 <삼조문화시설(三祖文化始說)>⁴⁷⁾에 잘 나타나 있다.

“역사적으로 잘못 된 것을 바로잡아 치우에게 올바른 이름을 주어 중화문명이 더욱 완벽하고 찬란하게 해야 한다. 선진 이후 사적은 대부분은 황제와 염제 후예인 한족의 입장에서 쓰여 치우를 시조에서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잘못 전승하였다. 민족 대가정 중 적지 않은 소수민족이

45) 楊志强, 위의 논문, 111쪽.

46) 《三祖文化》 2013年 제2期, 涿鹿中華三祖文化園管理委員會, 1쪽.

47) 任昌華, 앞의 논문, 20-22쪽.

불쾌해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면 중화민족대가정이 분열하고 불화하는 현상이 출현하게 된다. 신중국 성립 이후 공산당은 민족을 무시하거나 압박하는 것을 반대하고 각 민족이 평등하고 서로 단결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삼조문화의 관점을 제창하며 치우를 중화민족의 공동 시조의 지위로 높이고 염제, 황제와 마찬가지로 숭배해야 한다. 삼조문화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단결, 조국통일에 유리하고 당의 민족정책과 전국 각 민족 내지 해외 화인의 애국과 조상을 존경하는 공동의 소원에 부합하는 것으로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이며 민족 발전, 국가 강성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국 연구자들 중에는 중화삼조당의 건립을 동북공정과 연계시켜 비판한 적이 있다. 이덕일은 “치우는 의도적으로 중국인들의 조상으로 편입되었다. 치우를 끼워 넣어야만 현재 동북공정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치우를 삼조당에 모신 것은 서남공정에서 의도하는 중국 남부 먀오족의 영토와 동북공정에서 의도하는 중국 동북부 동이족의 영토를 중국의 역사, 중국의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⁴⁸⁾라고 비판을 하였다. 서유원은 “중국은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귀근원(歸根苑)과 중화삼조당(中華三祖堂) 등을 건립하였다. 이는 황제와 염제 이외에도 우리민족과 깊은 관계가 있는 치우까지도 그들의 삼대조상으로 영입하였다”⁴⁹⁾고 하였다. 김선자는 “월드컵축구팀 응원단의 깃발에 치우를 그려 넣으면서 치우천황에 열광하는 한반도 사람들, 그들의 기억까지 모두 포획해 들이는 것이다. 치우가 중화삼조의 하나라면 치우를 숭배하는 한반도 사람들도 결국은 중화의 범주 안에 든다.……이는 또한 동북공정과도 맞물리는 대목이다. 구려, 먀오족의 신인 치우를 중화민족의 그물 안으로 거둬들인다면 그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먀오족이나 한반도의 민족이 이론 모든 역사와 문명 역시 중화민족의 그물 안으로 끌려들어간다.”⁵⁰⁾고

48) 이덕일·김병기,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역사의 아침, 2006), 213-239쪽.

49) 徐裕源, <신화의 역사화와 ‘東北工程’과 관련하여 본 중국의 새로운 신화만들기>, 《中國語文論譯叢刊》第19輯, 2007, p.263.

50) 김선자,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 책세상, 2007, 406-417쪽.

하였다.

그러나 쥬루현을 방문해 보니 삼조문화론의 등장 배경은 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마오족과 관련이 있었다.

5. 결론

이상에서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쥬루현에 중화삼조당이 세워지게 된 정치적 배경, 이론적 근거와 문제점, 삼조문화론 제창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92년 이후 중국 공산당은 애국주의교육을 실시하는데 핵심은 엄제와 황제를 중심으로 중화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은 “나는 중화민족이지만 엄황의 자손은 아니다”라는 말로 저항을 하였고 치우 또한 중화민족의 조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삼조문화가 등장하는데 처음으로 불을 붙인 사람은 마오족 장군 천징이었으며 쥬루현의 부서기 런창화가 이를 수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등장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들의 ‘떠나가는 마음’을 잡기 위하여 치우를 포함한 3명의 조상을 중화민족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중화삼조당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리쉘친을 비롯한 학자들이 대거 투입되었으며 이들은 쥬루현이 황제가 도읍한 탁록임을 학술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으나 커다란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문이 정치를 위해 복무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런창화는 자신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여 학회를 여러 차례 거행하였으나 “어느 학자 하나 똑 부러지게 이곳이 황제시기의 탁록이다”라고 말해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공자가 대일통(大一統)을 부르짖었고 이러한 대일통사상을 집대성한 것이 사마천의 <오제본기>이다. 중국은 56개의 다민족국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삼조문화론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삼조문화론이 대일통사상처럼 중국을 또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통일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고문헌

- 《漢書·刑法志》
- 《後漢書·郡國志》
- 《晋太康地理記》
- 《嘉慶重修一統志》 卷四十
- 《括地志》
- 《明一統志》 卷五
- 《史記·五帝本紀》
- 《續夷堅志》 卷四
- 《水經·課水注》
- 《太平寰宇記》 卷71
- 《太平寰宇記》 卷四十六
- 《魏土地記》
- 《逸周書·嘗麥》

한국 문헌과 논문

- 김선자,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 책세상, 2007.
- 박성수, <蚩尤天王과 民族史觀>, 《치우연구》 창간호, 2001. 3.
- 徐裕源, <신화의 역사화와 '東北工程'과 관련하여 본 중국의 새로운 신화만들기>, 《中國語文論譯叢刊》 第19輯, 2007.
- 이덕일·김병기,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역사의 아침, 2006.
- 진태하, <蚩尤(치우)天王에 대한 研究>, 제1회 한중일문화 국제심포지엄,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2009.

중국 문헌과 논문

- 常文鵬, 王剛, <從考古學角度試論黃帝在涿鹿>, 《文物春秋》2013年 第3期.
- 劉建華, <張家口地區戰國時期古城址調查發現與研究>, 《張家口考古文集》, 張家口文物考古研究所 編, 中州古籍出版社, 2009.
- 韓建業, <涿鹿之戰探索>, 《中原文物》, 2002年 第4期.
- 賀 勇 등, <京西涿鹿炎黃文化的形成, 鞏固和發展>, 《張家口考古文集》, 張家口文物考古研究所 編, 中州古籍出版社, 2009.
- 曲 辰, <古涿鹿黃帝遺跡述略>, 《炎黃文化研究》1995年 第2期.
- _____, 《三祖文化》2013年 제2期, 涿鹿中華三祖文化園管理委員會.
- 蘇秉琦, 《華人·龍的傳人·中國人》, 遼寧出版社, 1994.
- 蘇秉琦, 《中國文明起源新探》, 三聯書店, 1999.
- 臺灣三軍大學 편저, 《中國歷代戰爭史》第2冊, 中信出版社, 2012.
- 楊倩描, <北魏王朝與涿鹿黃帝廟祭>, 《張家口職業技術學院學報》第13卷 第1期, 2000.
- 楊志強, <蚩尤平反與炎黃子孫——兼論近代以來中國國民整合的兩條路線>, 《中國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卷27 第4期, 2010.
- 王北辰, <黃帝史跡涿鹿, 阪泉, 釜山考>,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4年 第1期.
- 王明珂 지음, 이경룡 옮김, 《중국 화하변경과 중화민족》, 동북아역사재단, 2008.
- 任昌華, <三祖文化始說>, 《千古文明開涿鹿》, 河北省涿鹿縣旅游局, 涿鹿中華炎黃蚩三祖文化研究會, 2000.
- 任昌華, <三祖文化 中華之光>, 《民主》2012年 7月.

< Abstract >

Zhoulu, Hebei, China, has advocated for the three-forefather culturism since 1994, and built a shrine for their three ancestors Yandi, Huangdi and Chiyou: the Chinese three-forefather shrine. After feeling a sense of crisis from the 1989 Tiananmen Massacre, to rally scattered public sentiment, the Chinese Communists tried to gather minority groups in China as well as Chinese around

the world with Yandi and Huandi as the central figure, and to embrace all of them in the framework of Chinese nation. Ethnic minorities, however, objected to it, saying, “We are not descendants of Yan-Huang, even though we are also Chinese nation,” and especially, Miao, considering Chiyou as their forebear, demanded to recognize Chiyou, who has been depicted negatively against Yandi and Huangdi, as one of the Chinese national ancestors. Chinese government, witnessing signs of disunion of minorities, which is the most sensitive matter in Chinese political life, extensively organized an academic group, advocated three-forefather culturism that acknowledges Huangdi and Yandi including Chiyou as three forebears of Chinese nation, and built the Chinese three-forefather shrine in Zhoulou. Unlike some of the Korean scholars contending the theory started from the purpose of catching away Chiyou, ancestor of Koreans, it was part of ‘A Project of Making Chinese Nation’, to prevent minority groups from breaking away.

Key words: Chiyou, China’s Advocacy for the Three-Forefather Culturism, the Chinese Three-Forefather Shrine, A Project of Making Chinese Nation, Miao peopl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9. 5.	2014. 10. 29.	2014. 11. 3.	2014. 11. 12.	2014. 11. 30.